

아조프 부대 규모에 대한 의문점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4개월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침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민간인 피해와 학살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있는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사실이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료들도 진실로 포장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가지 내걸은 공약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내의 나치세력들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 측의 그러한 근거는 어디있을까?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치 협력 역사와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확장된 아조프 부대의 존재에 있을 것이다.



아조프 대대는 2014년 5월 돈바스 내전 상황에서 민병대로 시작했고, 돈바스 내전을 거치며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편입됐다. 이들은 특히 마리우폴 재탈환에서 많은 전과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마리우폴 전투 와중에 이들이 존재가 간혹 얘기가 되었던 것은 아마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아조프 대대의 상징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무장 친위대인 SS의 로고를 가지고 왔다. SS 휘하 기갑사단(전차사단)인 다스 라이히의 로고를 그대로 따왔으며, 따라서 아조프 대대는 창설시점부터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즘 그리고 이에 협력한 스테판 반데라를 찬양하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극우조직인 프라비 섹토르와 스보보다 등과도 연관이 있다.



2022년 한겨레를 포함하여 국내 언론과 서방의 외신보도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조프 대대의 규모가 대략 900명 정도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극히 축소된 수치다. 왜냐하면, 당장 마리우폴 전투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정규군 주력을 담당한 이들이 바로 아조프 대대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들이 보유한 전차와 장갑차만 해도 수십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돈바스측 추정에 따르면 이들의 규모는 최소 1개 사단 정도 된다고 한다. 이게 실사 과장이라 해도, 못해도 이들이 보유한 전차와 장갑차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수천 명 이상은 된다고 보는게 현실적이다. 거기다 전 세계에 있던 네오나치들이 우크라이나로 와서 지원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점은 조명이 거의 되질 않았다.

아조프 대대는 분명히 네오나치 조직이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런 극우주의자들이 결코 적지 않다. 물론 이것도 발트3국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어도,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즘은 분명 박멸의 대상이다.

- dc official App